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의 100년 역사 - 치과의료체계 발전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 주 연 / 세브란스치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대치)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100년 역사의 공과를 살펴, 향후 100년의 이정표로 삼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 '한성치과의사회'에서 시작된 한국인치과의사단체가 해방 후 분단과 전쟁, 경제와 민주주의의 발전, 세계화 과정에서 어떻게 전문가단체로 성장하면서 한국 및 세계의 치과의료체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치과의료체계는 국가차원의 치과의료를 가동시키는 치과의사법(교육, 시험, 면허, 시설)과 관련 정책·행정·보험·재정·산업 등의 복합체를 이야기한다.

1925년에 결성된 한성치과의사회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치과의사의 단합과 한국인의 구강위생계몽과 진료 봉사, 독립운동 후원 등을 통해 민족적 자주성을 지켰다. 한성치과의사회 회원들은 해방 후 시도지부를 둔 중앙치과의사회를 조직하고 이끄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인적·물적 배분과 발전방향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있었으나, 정기총회, 기관지발간, 학술대회, 치과대학교육, 구강위생주간 등의 회무에는 충실했다. 한국전쟁 이후 대치와 서치는 단합하여 2개의 신설 치의학부 폐쇄와 예과2년 과정 신설, 아시아태평양회의(APDF, 1958)와 세계치과의사연맹(FDI, 1959)회원국 가입과, 분과학회 인준도 시작하였다. 1962년 중앙치과의사회 가입을 통한 정기신고와 보수교육이 법정 의무가 되었고, 운영회비도 신설(1964-)되었다. 1967년 서울에서 제5회 아태회의를 개최하면서 잠시 치무과가 부활(1967-70)되기도 하였다. 치과의사윤리강령(1971)을 제정하고, 정책위원회를 발족(1976-, 정책연구소 2007-)하고, 치과의료문화상(1977-)도 제정하였다. 1978년에는 '설탕 덜먹기'운동과 '설탕유해 경고 표기' 활동을 통해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으로 치과접근성은 높아졌으나 충치치료 위주였다. 치협은 치주치료 희망회원제도(1998)를 실시하여, 2021년 '치은염 및 치주질환'치료가 다발성외래요양급여 1위를 차지하였다. 1997년 제 85차 세계치과연맹 서울총회를 개최하면서, 2003년 FDI 총회 윤흥렬 회장도 당선시켰다. 시민단체와 결합한 서명운동 및 국회 청원을 통해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 확대'와 '구강보건과 설치(1999)', '구강보건법 제정(2000)'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2007년 보건복지부는 의료민영화법안에 대해 치협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구강보건팀을 해체하였다. 치협은 생애주기별 건강보험보장성확대(2000-)와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에 노력하여, 2019년 '구강보건과'가 부활하였다.

치협은 양질의 교육을 위해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2002)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설립(2007)을 지원하고, 치과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도입(2021)하였다. 또한 수련고시위원회를 신설(2005)하고 전문의자격 시험을 실시(2008-)하였다. 자율규제를 위해서는 '윤리위원회'법제화(2012)와 '치과의료감정원'의 신설(2025)을 추진하고 있다. '치과의사 미간보톡스 및 안면레이저 허용'승소(2016), 양악수술 등을 통해 진료 영역은 확장하였다. 특히 치협이 '강화된 1인 1개소 법(201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2019)'을 받아낸 것은 의료독과점 및 지나친 영리추구가 아닌, 양질의 양심적인 의료행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치협과 서치는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치과기자재업체의 동반자로서, 구강보건 및 디지털 산업의 혁신과 해외시장개척에 앞장설 것이다

학력 및 경력

-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의학 석사·박사 취득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외래교원
- * 동국대학교 문학 석사 취득
- * 현, 연세대학교 외래·겸임교수

대한치과의사협회사 편찬위원, 서울시치과의사회사 편찬위원(1995-)